

‘알레르기 = 만성질환’ 인식하는 부모의 자세가 치료 첫걸음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 <136>

소아 알레르기 질환

소아 아토피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비염 및 천식 등은 당초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만성 염증성 질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아의 일부 보호자들에서는 ‘만성 질환’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이 같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쿨롱, 코비법, 재채기 및 코막힘과 같은 알레르기비염의 증상 및 호흡곤란과 같은 중한 천식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며, 필요할때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아의 여러 알레르기질환은 증상 약화가 없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봄철, 소아 알레르기 악화되는 시기=매년 3월 중순이 되면 어김없이 천식의 악화나 알레르기 결막염 및 알레르기비염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봄철에 주로 알레르기 원인으로 작용하는 나무 알레르겐의 공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및 황사의 영향으로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이 더욱 악화 되기 때문이다.

심한 아토피피부염 아이를 둔 보호자본의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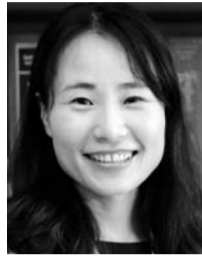
알레르기 원인 찾고
약물 치료는 지속적으로
기본 치료 어기지 않은
꾸준함 필요하다

법을 동원하려 한다. 가장 효과 있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본적인 치료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굉장히 솔직한 질환으로 관리 및 치료를 한 만큼 좋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강의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알레르기 원인을 먼저 찾아야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소아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피부 반응 검사, 필요에 따라 혈액 검사)를 통해 원인이 되는 항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이 되는 항원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천식이 있는 소아 환자의 경우는 폐기능 검사 및 기관지 유발 검사를 통해 천식의 심한 정도 및 조절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폐기능 감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향후 추적 관찰을 하면서 필요 시 치료를 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폐

이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미국알레르기면역학회 연수
-일본 소아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
-호흡기질환과 천식·알레르기 비염 등 진료

기능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에는 오히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며,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운동은 이른 아침보다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기관지 자극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 조리시에는 후드 사용 및 환기를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한다. 또한 외출 후 집에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어린이 알레르기 환자의 치료 방법과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알레르기비염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집중도 저하 및 수면의 질 저하를 포함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비염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일차적인 치료약이며, 증상이 심할때는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복용

함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 1-2회 쓰고 끊는 것보다는 1-2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악화 반복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된다. 또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바로 투여하는 경우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며,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2주간 지속

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반복적인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투여 후 근처 병원을 찾아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현재 상태의 평가, 치료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부패방지 평가 2등급 ... 국립대 병원 중 최고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립대병원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이었던 12개 공공의료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한 것이며,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더 오른 성적이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정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정렴 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시행됐다. 평가 항목 중 반

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부문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전남대병원의 이 같은 결과는 전직원이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쳐온 결실이다. 이삼용 전남대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남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조성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남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조성

에 앞장서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활동과 교육을 통해 ‘부패없는 건강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작업치료학과 4학년 27명 국가시험 ‘작업치료사’ 전원 합격

3년 연속 100% 합격 성과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학장 김택호) 작업치료학과는 제46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4학년 27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작업치료학과는 2013년 개설 이후 3년 연속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60여 개 대학의 작업치료학과 중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한 곳은 2개 대학에 불과하다.

작업치료학과는 또한 지난해 11월 24일에 실시한 ‘보건교육사(3급)’ 국가시험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중 10명이 응시해 9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실시한 ‘보

건교육사(3급)’ 시험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동시에 합격생을 배출한 대학은 조선대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조선대 측은 학생들이 작업치료사 외에 전공과 관련된 보건계열 국가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작업치료학과 교수진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작업치료학과 송창순 학과장은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재활치료 및 평가·분석 등의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의 비중과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HPV 감염 여성, 심혈관질환 위험 25% 더 높다

자궁경부암 등에 영향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5%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HPV는 종류만 100여종이 넘는 인체 감염 바이러스로 역학적 관련성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고위험 HPV는 주로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지만, 두경부암과 편도암 등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북삼성병원 주은정·장유수·유승호


교수팀은 HPV 검사를 받은 30세 이상의 건강한 여성 6만 3411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고위험 HPV 양성그룹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음성 그룹보다 1.25배(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비만환 여성은 이런 연관성이 더 컸다. 비만하면서 고위험 HPV 양성인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음성 그룹보다 1.7배(70%) 높았다. 또 비만에 다대사증후군까지 동반한 여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배로 치솟았다.

연구팀은 고위험 HPV에 감염된 후 면역력 이상이나 대사증후군 등으로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침투하면서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북삼성병원 주은정 감염내과 교수는 “HPV가 자궁경부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혈관질환 발생에도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감염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